

# 수익률 치솟는 금펀드...지금 타도 될까

### 금펀드 수익률, 최근 1개월 새 13.94% 상승해 금광업체 주로 투자...금가격 오르며 수익률 ↑ “하반기에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 계속될 것”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금펀드가 수익률이 치솟고 있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 설정 12개 금펀드 수익률은 최근 1개월 새 13.94%를 기록했다. 금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3.19%에 달했다.

금펀드 가운데 설정액이 가장 큰 펀드는 블랙록자산운용의 '블랙록 월드골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이다. 펀드의 최근 한 달 수익률은 19.87%로 IBK자산운용의 'IBK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주식]'(20.41%·A클래스 기준) 다음으로

높았다. 블랙록월드 골드펀드는 자산 총액의 대부분을 전 세계 금광업체 주식에 투자하는 BGF월드 골드펀드에 재투자한다. IBK골드마이닝펀드도 자산 60% 이상을 귀금속 등 금광업 산업 관련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 이 펀드는 금광업 관련 상장된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IBK 골드마이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90% 이상 투자한다. 펀드는 금광업체 뉴크레스트 마이닝(NEWCREST MINING ORD), 뉴몬트 마이닝(Newmont Mining Corp)에 주로 투자했다. 특히 보유 종목

중 하나인 커클랜드 레이크 골드(KIRKLAND LAKE GOLD LTD)는 연초 이후 64.5% 상승했다. 금광업체 종목 주가는 금값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공행진을 거뒀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기 부진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값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의 가치가 된다. 하반기에도 안전자산은 여전히 선호될 가능성이 높아 금펀드도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 대부업 대출잔액 17.3조 4년만에 증가세 멈춰

대부업 대출이 4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멈췄다. 대부업 대출 이용자 수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18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 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938억원(-0.6%) 감소했다. 반기 기준으로는 2014년 말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4년 하반기 11조2000억원에서 2017년 하반기 16조5000억원, 지난해 상반기 17조4000억원으로 줄곧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중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은 1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5조원) 대비 4000억원 줄었다. 특히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대출잔액이 3조8000억원으로 상반기(4조1000억원) 대비 3000억원(-7.5%) 감소했다. 반면 중소형 대부업자는 같은 기간 2조5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2000억원(10%) 증가했다. 대부이용자 수는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의 거래자 수 감소로 지난해 6월 말(236만7000명)보다 15만4000명(-6.5%) 줄어든 22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대부이용자 수는 2015년 12월 말 이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단 1인당 대출잔액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잔액에 비해 이용자 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2017년말 667만원, 2018년 6월말 737만원, 2018년 12월말 784만원 등으로 증가했다.



KT,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 LTE 2' 출시  
KT가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 LTE 2'를 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델이 KT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 LTE 2'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 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계·기업에 부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계·기업 등 국민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총협)는 1일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18년 16.4%, 2019년 10.9%씩 과도하게 인

상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불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 이외에도 정부, 가계 등에게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으로 실물경제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 임금 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호봉제 운영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 전남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함께 일할 인재 구합니다”

#### 내일 나주서 에너지밸리 전남일자리 박람회 개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과 공동으로 '에너지밸리 전남일자리 박람회'를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지난 2018년 처음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전남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자체, 에너지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외에 ㈜셀시스(유지인력 등 지역 우량 중소기업도 참여하며, 20개 기업에서 7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이 행사 주최기관으로 공동 참여하여 박람회 참여기업에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에서 7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참여기업에는 무료 부스와 현장 면접에 필요한 물품이 지원되며, 구직자에게는 취업컨설팅, 직

업심리검사, 이력서 사진촬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자체, 고용부 등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전남도·병무청 등과 함께 개최한 합동 일자리박람회에서도 30명, 5월에 광주·전남과 개최한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서 138명의 지역인재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이재홍 청장은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에 취업해 우리지역 혁신성장을 이끌어주길 바란다.”면서, “광주·전남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일자리 매칭포럼 ▲합동 일자리박람회, ▲진로직업 페스티벌,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등을 하반기에도 추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6월 수출 급감...반도체 부진에 7개월째 하락세

반도체 25.5% 감소 최대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단기간 하락으로 부진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수출액이 441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1.2%)을 시작으로 올해 1월(-5.8%), 2월(-11.1%), 3월(-8.3%), 4월(-2.0%), 5월(-9.5%)에 이어 6월까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평균 수출액은 20억5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 산업부는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교역 위축 ▲주요 품목 단가 하락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을 꼽았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전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지난 4월 기준)이 모두 줄었다. 독일(-9.1%)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고 중국(-2.7%),

미국(-2.4%), 프랑스(-1.6%)도 부진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세계교역량지수도 96.3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83억2000만 달러로 25.5% 감소했다. 메모리 단가 하락이 지속됐고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재고 조정이 악재로 작용했다. 석유화학 수출액은 24.5% 줄었다. 국제 유가 하락과 제품 구매 지연으로 단가가 하락했다. 일반기계 수출액은 41억9000만 달러로 3.8% 감소했다. 디스플레이와 가전 수출액은 각각 15억5000만 달러, 5억4000만 달러로 각각 18.5%, 2.8% 줄었다. 산업부는 수출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단가가 급락하면서 수출 규모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33.2%)와 석유화학(-17.3%), 석유제품(-11.6%)의 수출단가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